

“ESCO자금 취급하는 전담은행 필요하다”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지난 11월 14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제 23회 에너지절약추진대회 유공자포상 시상식에서 ESCO협회 최석곤 회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최석곤 회장은 ESCO사업증진과 에너지절약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ESCO를 102개로 늘리고, 약 8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수입비용 대체효과를 창출하였으며, ESCO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해외벤치마킹을 통하여 ESCO의 건전한 발전과 법령제도 개선 등 ESCO의 전문화를 추구하여 에너지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은 최석곤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수상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에너지절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ESCO인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모든 에너지절약사업 종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장 발전하는 ESCO사업과 협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사 제위를 비롯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포장 수상이 ESCO사업 발전과 정착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을 실시하는 데서 느끼는 긍지나 보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후변화협약 등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비용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ESCO 시설투자는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Special Interview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SCO들이 주체가 되는 '협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운영과 관련한 일정권한을 협회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상을 확립하고, ESCO는 협회를 통해 결속력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석곤 회장이 에너지절약축진대회 유공자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ESCO사업은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 해마다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ESCO에 대한 인식 확산을 넘어 보편화의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절약사업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국내 ESCO업계가 당면한 문제와 더불어 ESCO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을 들 수 있는지요

ESCO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은 금융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은행이 ESCO사업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고,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고금리 factoring에 자금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SCO자금을 취급하는 '전담은행'을 만들어 ESCO들이 시중은행중 지정된 창구를 통해 자금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겠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의 등록기준을 지적하고 싶은데, ESCO로 등록된

154개 업체중 과연 몇 개나 제대로 된 ESCO인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을 초래하였고,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은 ESCO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최저가 입찰제를 최저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만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할 때부터 ESCO의 사업분야를 '전문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조명전문회사'는 그들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 참여기회를 해당 분야의 전문 ESCO들로 제한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SCO들이 주체가 되는 '협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운영과 관련한 일정 권한을 협회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상을 확립하고, ESCO는 협회를 통해 결속력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임기간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것과 운영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동안 ESCO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온 우리 협회가 150여 ESCO의 중심이 되어, 앞서 제시한 'ESCO 전담은행' 마련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며 그 대상을 찾는 일은 ESCO의 몫입니다. 고도화된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협회차원에서 회원사간 기술협력과 국내외 에너지산업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e